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이웃에게 전하는 십자가 향기, 자원봉사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후 9:12)



복음
The Gospel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사무엘상 1:19~28)

1.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2.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었다

3. 계속하여 경배드리는 여인이었다

아들을 성전에 맡기는 한나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그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삼상 1:28). 어렵게 얻은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한나에게서 슬픔은 찾아볼 수 없다.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경배를 드렸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삼상 2:1~2). 이러한 한나의 경배와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되었다(삼상 2:19~20). 변함없는 믿음으로 경배드리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라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삼상 2:21).

한나의 가정은 위태로웠다. 한나의 현실은 매우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이행하였다. 그녀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에 은사를 베풀었다. 위기에 봉착한 한 가정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듯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일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딤후 1:11). 악한 영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게지기 일보직전의 가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마 11:28).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최근 충현기도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 뒤편 산책로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을 보강하였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길목마다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꽃을 심어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수집사들과 권사들을 주축으로 한 자원봉사의 열매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와 흠뻑 땀의 결실로 충현기도원은 기도의 등산으로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흔적은 교회의 이곳저곳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교회주변의 화단정리와 청소, 주일에는 녹색지킴이를 입고 교회 곳곳을 누비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음식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벧전 4:10)에 순종하여 섬기는 모습은 볼날에 핀 그 어느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놓으면 됩니다(갈 2:20). ‘말’이 아닌 ‘행’로 뛰는 이웃사랑 실천의 자리로 지금, 오십시오.

“문의/자원봉사실(본당1층, 내선 421)

THE ASCENSION OF JESUS CHRIST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 (10)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11) 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6-11)

Jesus Christ ascended into heaven forty days after His resurrection. Forty days is associated with many things in the Bible: the length of the flood(Gen. 7:17), Israel's embalming(Gen. 50:2,3), Moses on Mt. Sinai(Ex. 24:18), Spies in Canaan(Num. 13:25), Moses' Prayer(Deut. 9:25-29), the Philistine's arrogance(1 Sam. 17:16), Elijah's fast(1 Kgs. 19:2,8), Nineveh's probation(Jon. 3:4), and Christ'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Lk. 4:1-2). There were many appearances of the risen Christ during His forty days. "until the day when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He had by the Holy Spirit given orders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To these He also presented Himself alive after His suffering, by many convincing proofs, appearing to them over a period of forty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Ac. 1:2-3).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spent forty days ministering to His disciples, and eleven of His conversations are recorded in the gospel. Why did Jesus leave us to go back to the heaven? Why is His ascension so important?

Jesus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a place for His peopl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Jn. 14:2). He started preparing even before His ascension. He gave this amazing promise of peace to His disciples before His death and again before His ascension. The Lord is preparing our eternal homes in heaven right now. It's sad that we think too little of that prepared dwelling place. Our time here on earth gets filled with so much nonsense, so we need to make time for our minds to dwell on what's important. What does the hope for heaven mean to you?

Jesus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His people. Beforehand He's building our eternal homes, and then making things ready for our eternal homecoming. Jesus told His apostles. "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Ac. 1:4-5,8). When we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others are able to go to heaven.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witness and collect the lost.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16,26). The Holy Spirit lives within each

believ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Jn. 14:17). The Holy Spirit provides the power we need to witness, gives us peace during affliction, and equips us with the strength to live Christ-like lives.

Jesus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for His return. His disciples were curious about His plans.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Ac. 1:6-7). Humans have a curiosity about Christ's return, but no one knows this secret.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nor the Son, but the Father alone"(Mt. 24:36). The angels told Jesus' disciples.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Ac. 1:11). The Bible tells us what will happen when Jesus does return.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 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For this we say 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who are alive and remain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will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1 Thes. 4:13-16). Living believers will be caught up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together with those believers who already died! Sometimes I wonder what if the flight upward will make-one me dizzy.

What is the ascended Christ doing now? He is preparing a place for you and for all those who place their faith in Him. He is interceding on your behalf.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Heb. 7:25). Isn't that a great news? 1 John 2:2 says. "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ose of the whole world." Right now, He is moving people and nations into His prophetic plan. He will return right on time. Jesus prepared His disciples for what was coming. Sincerely and truthfully are you prepared to serve the Lord until He comes? Are you ready for Christ's return? Is your heart singing, "Halleluiah, come soon Lord Jesus." Amen. 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㉒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㉓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11)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의 많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의 기간(창 7:17), 야곱의 시신 방부 처리(창 50:2,3), 모세가 시내 산에 머문 기간(출 24:18), 가나안 정탐(민 13:25), 모세의 기도(신 9:25~29), 골리앗의 자만심(삼상 17:16), 엘리야의 금식(왕상 19:2,8), 니느웨의 집회 유예(욥 3:4),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눅 4:1~2) 등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2~3).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주님과 대화 내용 열한 개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왜 그토록 중요하니까?

하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평화의 약속을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천국의 예비된 집을 떠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여러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다음 우리의 영원한 귀환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5,8). 여러분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모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16,26).

성령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환난 중에 평안을 주시며,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6~7).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비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마 24:36). 천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3~16). 살아있는 신자들은 먼저 간 신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가끔 저를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너무 어지러운데 어찌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2:2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한 계획대로 사람들과 나라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

거듭난 삶

기도의 부흥 ②

(야고보서 5:13~18)

있으며,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막 9:29). 왜, 기도의 부흥이 필요한가? 계속해서 살펴보자.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신다(요 14:26). 성령님은 진리 이시기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요 16:13).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였다(행 16:6~7,9).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진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해서였다(눅 19:10). 구원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는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하지 않을 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계 20:14 ; 막 8:12). 악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자(롬 6:23 ; 요 3:16).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물들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정신 차려 기도하자.

우리의 삶과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절실하다.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땅에 가득한 속임으로 인해 병들게 된다. 또한 영적으로 둔해져 성령님의 가르침보다는 악한 세상을 좇아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참된 기도의 부흥을 소망하자. "주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교역자 간증

십자가

나는 믿는 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섯 살에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아니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거라고 자랑하듯이 말하곤 하였었습니다. 그 동안 나에게 십자가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게 하는 재물이었고,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는 도장이었으며 실수를 슬퍼하는 눈물을 담은 단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십자가는 가장 비밀스런 장소인 동시에 가장 멋있게 꾸며 놓아야 하는 장식품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민해 보았는가?" 세월이 지난 지금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감격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살았다고,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모셔놓고 기도할 때에만 꺼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결정, 빌라도의 결정을 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아니 믿는 빌라도는 예수가 옳은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애를 태우다 충고했다. 빌라도에게도 찬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했다. 문화와 종교와 정치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다. 그리고 중도로 물러섰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몰랐다.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까지 적셔졌음에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니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를 보지기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빛깔로 덧칠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저는 중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숨기니 모든 사람에게 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무죄하다"는 빌라도의 선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담대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를 듣게 하옵소서. 물뭍이기 속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포구라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강영기(목사, 선교위원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며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며

우상적인 관념의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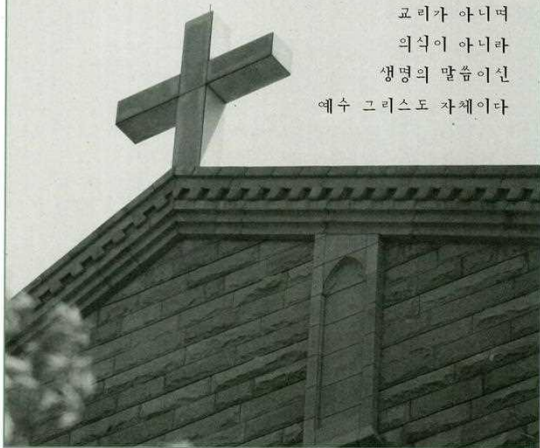
도덕이 아니며

교리가 아니며

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 선교사역을 준비하며 이 말씀으로 세운 밤에 감사했고 주님은 늘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심을 느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기쁨으로 준비하고 출발했다. 선교지는 몹시 무더운 나라로 1년 중 가장 더운 때가 4월이라고 한다. 처음의 각오는 달리 쉽게 지쳤다. 땅의 열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겨우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손수건과 맘을 열심히 들었다. 방학이라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아 전하가 좋고 찬양을 가르치니 재미있게 따라했다. 또 어떤 곳에는 나도 예수님을 들어보았고 안다고 했다.

명절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루한 옷에 한쪽 손이 잘리고 없었다. 그에게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아멘"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혼자 쪼그리고 앉아 성경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하고 감탄하며 감사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표정이 즐거웠고 열정기도를 받았다. 마루에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 매우 반기며 성경을 읽어 보시고 "아멘, 아멘" 하신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주일 오후에는 병원사역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육신은 비참했고 영혼은 죽어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 "아멘"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골 10:16~18). 할렐루야! 내가 전한 복음이 다 퍼져 나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나는 심었고 성령님이 길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다시 외진 곳에 가니 10살된 소경 아이가 있었다. "주님! 이곳에 관능을 배부시자 어두운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가 비록 육신은 어두움이라되 영의 눈은 환히 밝았으리라 믿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을 알게 된 이번 사역은 기쁨의 사역이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박치화(권사, 9교구)

지금 준비하세요! 선교(2) 선교 1차 심사

교구나 교회학교에서 8~13명의 팀원들이 모이면 팀이 구성됩니다. 이때 팀을 이끌고 나갈 팀장과 총무도 선임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열방을 가금에 롭고 기도하면서 선교팀의 비전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팀장과 총무는 선교 1차 심사 를 받게 됩니다.

1차 심사는 심사자로부터 주님께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심사자를 뵈고 나가라는 소명을 받은 팀의 팀장과 총무들이 함께 주님의 응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때 선교지와 선교기간을 확정하게 되며 그에 맞추어 각 팀의 훈련일정과 훈련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팀의 영적인 준비사항들도 점검합니다.

즉 1차 심사시간은 각 선교팀의 선교지를 향한 스티트 라인이 됩니다. 성령께서 호루라기를 불면 팀원들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됩니다. 영혼사망의 마음을 품고 현지 언어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걸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교위원회)



선교 1차 심사 중인 각 팀의 팀장과 총무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

이번 선교지를 놓고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를 했다. 첫 날부터 한국과 기후 차이가 많이 나서 육적으로 힘이 들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곳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나 가정 안에 놓여 있는 우상들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곳에 또 절을 할 그들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릴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지시하며 하루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며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우 초롱초롱했고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셨다.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셨으며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남경(권사, 12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2일(수) ~ 5월 20일(목)	21교구 1팀	이영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4일(화) ~ 5월 12일(수)	15교구 1팀	나승은
5월 4일(화) ~ 5월 12일(수)	20교구 1팀	배관용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6일(월) ~ 5월 6일(목)	24교구 1팀	김금숙
4월 30일(금) ~ 5월 3일(월)	4교구 1팀	신동수

새가족양육부 4월 수로자

이제 알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 위임목사님의 십자가 말씀으로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로만 여겼던 언급하기, 말씀묵상하기, 기도하기와 같은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와는 동행하시는 친구이자 구주이시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항상 예수님께 묻고 나아간다. 앞으로 매일매일 내 삶이 성령님의 은사로 넘쳐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나 믿지 않는 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항상 힘쓸 것이다. (정수현)

✂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믿고 원하는 자의 곁에 서서 도와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만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곁에 나오길 바라며 나의 신앙이 영감이 부여되지 않길 기도한다. (김종균)

✂ 주일3부예배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는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가족들 운전기사 노릇만 하고 분당 한번 들어가 보지 않고 국수만 먹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에선가 나를 쓰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제 장년2부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김성구)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주님께 의지해서 살고 싶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싶다. (최한수)

✂ 우리부부는 교회에 나오기 전 열심히 절에 다녔었다. 한 권사님의 전도로 중령교회에 나오며 불교하고 다른 점을 많이 느끼고 마음 깊이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신다고 들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장보환)

✂ 성경과 찬송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주시고 우리의 평안과 처지를 아시는 참 사랑이시니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럼이 없게 더 큰 믿음생활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다가가기 위해 날마다 독상하고 기도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여나영)

✂ '예수를 믿는 구주 삼고' 찬송가 연을 올렸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로자를 하게 되었다. 회사업무로 중령교회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교회 규정이 엄격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장로님의 인도로 중령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주 주일3부예배를 드린 후 새가족 양육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느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경말씀과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중령교회가 좋다. 믿음이 많이 부족한 나에게는 수로 우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성경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오종훈)

주일예배 후, 중현의 어린이들은?

교회학교의 예배를 마친 어린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찬가면 어린이(유치부)는 부모님이 교구요일을 가셨다면 연수를 찾아 교회 옆 놀이터를 서성였다. 또 왕면서 왕연경 남매(초등1부)는 아직 봉사 출석인 부모님을 기다려야 한다며 두 손을 잡고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였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가 예배가 끝났음에도 교회에 남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중현의 부모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이 주일 오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영유·초중 도서관) - 제1교육관 7층



제1교육관 7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봉사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놀이터나 때로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매주 일 200~25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9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영유아들을 위한 공간과 초등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선생님들은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신간서적을 직접 구입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또 책뿐 아니라 시청각실이 마련되어 있어 성경관련 영상을 통해서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도서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어린 시간에도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린이 선데이 영어교실 - 제1교육관 607호

우리가 PK(Pastor's Kids)로 알고 있던 선데이 영어교실이 초동1~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매주 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2개 반, 2시부터 2시 50분까지 11개 반으로 현재 12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수업은 주일실교과목과 찬양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영어로 배우고 나누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중현의 아이들의 입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쉽고 친근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게 되었다.

*선데이 영어교실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 모금. 문의: 내선 231/016-388-6291

어린이 놀이터 - 교회 옆(경문 및 지하주차장 쪽)



우리교회의 부지에 마련 된 2개의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참의 장소로 충분했다. 봄을 맞아 주말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놀이터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취재: 이은정 기자

♡ 새 가족 을 완 영 하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0	김미혜	14	청년1부	윤석구(19)	476	김정환	5	장년2부	박희주(5)
461	최유진	2	초등2부	최병일(5)	477	남상호	12	청년1부	황옥영(9)
462	김강훈	14	중등부	최종영(2)	478	여부서	16	장년3부	송병열(17)
463	조남자	16	청년1부	주중호(6)	479	박복용	12	청년2부	김병희(16)
464	신정아	20	청년1부	강혜원(20)	480	박종호	16	청년2부	장숙희(8)
465	이재현	22	청년2부		481	최서영	5	소양부	김기원(5)
466	김종민	13	중등부	김혜영(13)	482	최정호	2	장년2부	이성지(2)
467	현성호	7	장년1부	김상현(12)	483	고재훈	18	청년1부	원문지(1)
468	노병식	11	청년2부	김정희(15)	484	박광복	25	여배우	김나리(25)
469	김진숙	24	청년1부	임정희(24)	485	유미희	11	청년2부	신영희(14)
470	김정주	5	청년2부	이형태(5)	486	서동기	18	청년2부	이형호(11)
471	이형준	5	초등2부	이형태(5)	487	이신아	2	청년2부	김정자(2)
472	이준수	5	유치부	이형태(5)	488	윤혜경	6	장년2부	박나윤(7)
473	임원숙	10	청년1부		489	남상우	9	청년1부	이형애(9)
474	최희선	18	청년2부	김영자(10)	490	남민우	22	장년4부	조화선(22)
475	전선진	16	고등부	조영구(9)					

* 중령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산전 4:13~18)하며

신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삼전 4:13~18)하며
 모든 고난과 고생을 부린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의 생명(요 14:6)
 신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
 하소서.

위임국립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도로 사모하여 주시고, 영육의 긴장함을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간행한 은혜(요 4:24)를 위
 하여 미리 준비(요 5:29) 전 생애를 착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25개 교구와 20개 교회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전하는 전권국립(막 12:9)의 계속 양성되 하소서.

1월 1일 1월 1. j. 전도하여 교구주님과 이웃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 1월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복음의 오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거신
 (막 16:15)에 자기를 부린다는 믿음으로 보라는 선교가
 되는 선교자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충현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용이하게 하고 충현복음의 힘 현재 추진(영양린, 남
 시, 함양영양린)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
 (롬 15:24) 되게 하소서.

피택자들이 모든 혼란의 통해서 자기를 부린하고, 오
 시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령(골 2:20)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키드신 : 보단 113 호

*개강예매: 오늘(9일) 16:00, 본당 112호실
*장소는 주무 공지
*모든 수업은 주 1회 50분 수업(유아반 제외)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 변경 가능
*수강을 원하는 어르신은 각자 주무(본당 제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예배 다다 (5/12-5/16)

교회 오시는 길

↑동대교

↑남대교

↓남대교

↓서대교

리츠호텔

차병원

충현교회

문화센터

GS칼텍스

영동대학교

국가관

스타벅스

현대호텔

KIA-48점

정기

섬 · 기 · 는 · 분 · 들

부동산					
한진	권영호	장영국	장오성	김기영	김만만
세종	22.2	신규	21.9	20.2	20.2
한진	김영호	김장훈	김정훈	박용현	
53.7	4.9	10.9	7.7	24.9	
한진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30.2	30.2	30.2	30.2	30.2	
한진	양재선	유재진	유재현	이광현	이승식
92.7	17.2	9.2	4.9	18.2	
한진	김정호	이재현	이희진	장정원	장 훈
4.9	4.9	4.9	4.9	4.9	
한진	정원민	정원민	최석동	최석동	박정원
30.2	30.2	11.2	13.2	9.2	
한진	하정훈	하정훈	황의원		
25.2	25.2	25.2			
한진	신광철				
25.2					
한진	원복철	장덕필	장영미	장국원	김민자
25.2	25.2	12.2	16.2	3.2	
한진	송광철	김정원	김정원	김정원	나영식
25.2	25.2	25.2	25.2	25.2	
한진	박정원	유진경	송진경	송진경	홍기우
25.2	25.2	13.2	15.2	15.2	
한진	이광철	유은진	이복수	이복수	이광철
25.2	25.2	25.2	25.2	25.2	
한진	이광철	이광철	전은희	정원민	최문식
25.2	25.2	25.2	25.2	25.2	
한진	전은희	홍은애	황은애		
25.2	25.2	25.2			
한진	정재동				
25.2					
한진	전종호				
25.2					
한진	최문식				
25.2					
한진	신경호				
25.2					
한진	신경호				
25.2					